

중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의 개정 현황과 전망*

이옥선**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개발과정과 실행에 관련된 쟁점을 탐색하여 이를 토대로 체육과 교육과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문서적인 수준에서 분석한 결과 체육과 교육과정은 스포츠교육학의 학문적 발전과 병행하여 문서체제, 목표, 내용에 있어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발전이 있었다. 교육과정 개발 측면에서는 총론과 각론 간의 소통, 교육과정 개발 주체 간의 소통, 학교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체육과 교육과정의 실행 측면에서는 일률적인 실천에서 점차 자율적인 실천을 거쳐 혁신적인 실천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체육과 교육과정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육 교과와 본질을 반영하는 책임감 있는 교육과정, 현장 친화적인 교육과정, 소통이 있는 교육과정으로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핵심어】 체육과 교육과정, 변천과정, 교육과정 개발, 실행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에서 개최한 학술대회(2012. 12. 7)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okseonlee@snu.ac.kr)

1. 서론

체육과 교육과정은 1차 교육과정이 등장 한 이래 최근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체육과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총 여덟 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수시 개정 체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체육과 교육과정의 개정에는 체육과 교육과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내·외부적 요인이 영향을 주었다. 내부적으로는 체육학과 스포츠교육학을 포함한 학문의 발전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급변하는 국가와 사회의 요구들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체육과 교육과정의 경우에도 학교 폭력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인성 교육과 같이 사회와 교육계 전반의 다양한 요구들이 수용되고 반영되었다. 이처럼 체육과 교육과정은 사회와 국가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한편, 발전하는 지식의 패러다임을 수용하며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강신복, 2009). 미래 글로벌 시대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인재 육성을 위해 체육 교과를 향한 다양하고 진지한 요구들이 있을 것이고 이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체육과 교육과정이 지나온 과정을 되돌아보고 체육과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체육과 교육과정의 변천과정을 문서 수준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교육과정이 어떠한 개발 과정과 개발체계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교육과정 개발에 관련된 쟁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개발된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를 고찰해 봄으로써 미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체육과 교육과정의 변천과정

2.1 체육과 교육과정 문서 체제의 변화

체육과 교육과정은 1차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8번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졌고, 각 교육과정의 문서 체제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체육과 교육과정 문서 체제의 변화

교육과정 시기	체육과 교육과정의 문서 체제
1차	① 보건과 및 체육과의 목적

(1954~1963)	② 보건과 및 체육과의 목표(학교급별 목표) ③ 보건과 및 체육과의 지도 내용 ④ 보건과 및 체육과의 지도 방침 ⑤ 보건과 및 체육과의 지도상의 유의점
2차~3차 (1963~1981)	① 목표(일반 목표, 학년 목표) ② 지도 내용 ③ 지도상의 유의점
4차~5차 (1981~1992)	① 교과 목표(학교급별 목표) ② 학년 목표 및 내용 ③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
6차 (1992~1997)	① 성격 ② 목표 ③ 내용 ④ 방법 ⑤ 평가
7차 (1997~2007)	① 성격 ② 목표 ③ 내용 ④ 교수·학습 방법 ⑤ 평가
2007 개정	① 성격 ② 목표 ③ 내용 ④ 교수·학습 방법 ⑤ 평가
2009 개정	① 추구하는 인간상 ② 학교급별 교육 목표 ③ 체육 과목 목표 ④ 내용의 영역과 기준 ⑤ 교수·학습 방법 ⑥ 평가

1차 교육과정 시기의 문서 체제는 목적, 목표(학교급별 목표), 지도내용, 지도방침,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체제가 2차에서는 목표, 지도내용,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압축되었고, 5차까지 유사하게 지속되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2, 3차에서는 교수·학습방법을 광범위하게 다루지 않고 지도상의 유의점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4, 5차에서는 ‘지도상의 유의점’이 ‘지도’와 함께 새롭게 ‘평가상의 유의점’이 등장하여 체육 수업에서도 책무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교육과정 문서체제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시기는 6차로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교육부, 1995). 6차에서는 처음으로 성격 항목이 추가되었다. 이는 체육이란 어떤 교과인지에 대해 바르게 알려려는 철학적 노력으로 체육교육의 성격과 교육의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방법과 평가가 분리되었는데, 이는 교육과정의 현장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라고 할 수 있다.

7차 체육과 교육과정부터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까지는 6차와 유사하나 ‘방법’이

‘교수·학습 방법’으로 개칭되었다. 이는 교사의 입장뿐만 아니라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성격’ 부분에 체육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인간상을 제시하는 등 보다 구체화된 체육의 성격을 기술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또한 2007 개정 교육과정은 7차와 동일한 문서 체제를 고수하나, 새로운 교육과정의 철학과 함께 신체활동 가치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전면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최근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체육과 교육과정은 교과목의 ‘성격’ 항목이 삭제되고, ‘추구하는 인간상’을 통해 체육교육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의 ‘목표’ 항목을 ‘학교급별 교육 목표’와 ‘체육 과목 목표’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지향점을 설정하였다. 특히 체육 과목 목표를 체육과의 방향과 역할, 체육과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체육과에서 지향하는 신체활동 가치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2.2 목표와 내용의 변화

1차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체육과 교육과정까지의 변천을 살펴보면 1~4차까지 점진적인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졌다면, 5차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다. 5차부터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목표를 강조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의 교육과정에서는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사회성과 인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신체활동 가치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의 변화가 이루어져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구체적인 교육과정 시기에 따른 목표와 내용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와 2차 교육과정은 매우 유사한데, 신체적, 사회적, 지적 및 정의적 측면에서의 목표 제시와 더불어 안전과 레크리에이션 지도를 중시하였다. 지도 내용은 체조, 스포츠, 무용, 레크리에이션, 보건·위생, 체육이론으로 구성되었다. 3차와 4차 교육과정 또한 서로 유사한데, 체력과 운동 기능 향상, 정의적인 태도 발달,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능력 육성, 여가 선용 및 정서 순화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내용은 순환 운동, 체조, 질서 운동, 육상경기, 구기, 투기, 계절운동, 무용, 보건, 체육 이론 등으로 구성되었다. 1차부터 4차까지의 교육과정의 내용에 체육이론이 등장하는데 이는 체육을 이론과 실기의 이분법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1차부터 4차까지 거의 유사하게 전통적인 스포츠 종목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내용적 측면에서 특이한 사항은 3차 교육과정에 ‘순환 운동’과 ‘질서 운동’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지도상의 유의점에서 서술되었듯이 강인한 의지와 굳센 체력을 지닌 강건한 새 국민 양성이라는 군사정권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축구와 투기 종목은 남학생, 무용은

여학생들에게만 가르치고, 체조는 남자 종목과 여자 종목을 나눠서 명시함으로써 성별에 따라 교육 내용을 달리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5차 교육과정은 운동기능, 체력, 신체적인 표현 능력 함양이라는 심동적 측면, 운동 관련 지식의 습득과 적용이라는 인지적 측면, 정서 및 사회적 태도 함양이라는 정의적 측면의 목표 설정과 함께 내용 또한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과거와 달리 정의적 영역의 교육 내용을 공식적으로 내용 체계상에 유입한 새로운 변화였다. 하지만 정의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의 내용을 심동적 영역과 분리한 채 제시한 가법적 접근으로 통합의 의미를 온전히 살리지는 못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이홍우, 1996).

6차 교육과정에서는 5차 교육과정을 더욱 심화·보완되기 위해 지식 구조를 강화한 목표 개념 중심 체제의 접근이 이루어졌다(교육부, 1995). 이러한 교육과정의 틀에 맞춰 여러 가지 신체 활동 또는 운동을 통하여 운동 능력과 건강 생활 영위 능력 함양이라는 목표를 강조한 것이 6차 교육과정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을 도입하여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인 10학년까지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하고 고등학교 2-3학년을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교과 내용의 최적화’ 관점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진적으로 분화하는 형태를 취하였고, 학습 분량의 최적화를 위해 ‘필수 내용’과 ‘선택 내용’의 개념이 도입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인지·심동·정의적 영역의 목표 체제를 지양하기 위하여 신체 활동 가치에 따른 목표 체제를 활용한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신체 활동 가치 중심의 내용 체계를 구성함으로써 내용 영역의 일원화와 계열성을 강조하였고, 학년별 신체 활동의 선택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학습량의 적정화를 위하여 교육과정 내용 영역의 수를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 활동으로 한정하고, 국가 수준에서 체육 교육 내용의 최소 내용 기준을 제시하여 단위 학교와 교사 수준에서 교육 활동의 양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최근 고시 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체육과 교육과정은 ‘신체 활동 가치의 심화 교육’을 지향한다. 목표 체계의 변화로는 총괄목표를 제시하고 그 아래 학년 군과 세부 항목을 두고, 5개의 신체활동 가치 영역별 목표를 제시한 것이 특징적이다. 지도 내용의 변화로는 항목이 ‘내용 체계’와 ‘학년별 내용’의 두 가지 하위 요소로 구성되었으며 영역별 내용 통합 및 조정을 위하여 건강 활동, 도전 활동, 여가 활동의 중영역과 내용 요소 수준에서 통합 및 조정과 같은 재구조화가 이루어진 것을 이전 교육과정과의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내용구성에서 신체 활동을 통한 창의·인성 함양에 초점을 두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3. 체육과 교육과정의 개발과 실행

3.1 체육과 교육과정의 개발

체육과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있어서 오랜 화두는 이상과 현실의 교집합 영역을 가능한 한 크게 넓히는 문제이다. 체육과 교육과정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종합해 보면 크게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 간의 소통, 체육과 교육과정 개발 주체 간의 소통, 학교 현장과의 소통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1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 간의 소통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앙집중식 개발모형(R&D; Research and Development 또는 RDD; Research,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에 기반을 둔 국가 중심 교육과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집중식 개발 방식은 국가 수준에서 표준을 제시하고, 부분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지만(우정호, 2003), 이러한 총론 주도형 개발 방식은 체육과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 여전히 고민거리를 던져 주고 있다.

체육 교과가 다른 교과와 구별될 수 있는 본질은 바로 ‘신체 활동’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다(유정애 외, 2007). 따라서 체육 교과와 같이 ‘신체활동 가치¹⁾’ 등 복합적인 교육적 가치를 지닌 교과는 총론에서 제시한 틀에 짜 맞추는 형태의 각론 교육과정이 개발될 경우 교과의 본질과 정체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개발 시 총론의 틀을 각 교과의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또한 총론의 개정 시에 각 교과의 교육과정 전공자가 포함된다면 총론과 각론 간의 소통이 보다 수월할 수 있을 것이다(조미혜, 2003).

3.1.2 체육과 교육과정 개발 주체 간의 소통

체육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참여 주체는 크게 개발진, 심의진, 협의진으로 구성되지만 개발에 참여하는 주체와 맥락이 다양하기 때문에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다. 또한, 개발진, 심의진, 협의진 별 자체 회의에 비해 전체가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는 과정은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각 주체별 의사소통 부족은 전체를 아우르는 큰 방향을 설정하는데 한계가 있을뿐더러, 향후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가 교육과정 의도에 맞게 원활히 집필되는데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김원정·강신복, 2006).

1)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는 체육과 교육과정의 교육적 가치임.

또한 개발 책임자 인맥 중심의 연구진 구성도 문제점이다. 학문적 성향이 같은 연구진 구성은 쉽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는 사고를 편중시킬 수 있어 오히려 창조적인 교육과정 개발에는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구색 맞추기식의 인원 구성 또한 고민할 문제이다. 특히 체육수업을 통해 교육과정을 직접 실행하는 현장교사의 역할은 문서 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한 현장 적합성 검증에만 머물러 있어 극히 제한적이다(김기철, 2008). 교육과정의 이상과 학생들이 배우는 현실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균형적인 인적 구성과 더불어 각 연구 주체들이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3.1.3 학교 현장과의 소통

체육 교사가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는 경우는 준비 단계에서의 설문 참여, 연구진 으로서의 참여, 공청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지만 설문 참여와 공청회도 요식행위 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청회는 교육과정이 개발되는 전체의 과정에 걸쳐 교육 당사자들의 의견을 교류하고 문제점을 찾아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하지만, 공청회의 이러한 본래 취지와는 달리 교육과정 개발이 거의 완료된 시점에서 공청 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 또한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뒤늦 게 대안 없는 주장만 오고 가는 난상토론식 공청회가 아니라 각계각층의 교육 주체들 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운영 방법상의 개선과 더불어 많은 홍보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사전에 주제를 주고, 교 육 관계자들이 함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사이버 공청회’와 같은 방법도 제안해 볼 수 있다(조미혜, 2003).

또한, 체육과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있어 다양한 현장교사의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체육 교사이지만 학문적 수준이 매우 높아 이론 가에 가까운 교사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현장교사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석사나 박사 학위를 가지고 학계에서 활동하는 교사보다는 일반 체육교사의 의견을 들을 필요도 있다(김원정, 강신복, 2006).

3.2 체육과 교육과정의 실행

실천적 수준의 교육과정은 문서화된 교육과정이 실제 학습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되 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체육교육을 의미한다. 체육과 교육과정 이 그간 어떻게 실천적 수준에서 이루어졌는지 되돌아보며, 교육과정의 현황과 전망을 찾아보고자 한다.

3.2.1 1~4차 교육과정의 실행

학교 현장에서 문서적 수준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르려 했던 1~4차 교육과정 시기는 수동적·일률적 실행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먼저, 1·2차 체육과 교육과정(1955-1973)은 불안정한 사회 시기 속에서 국방을 위한 건강한 국민을 양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체력 향상을 위한 일률적인 교수·학습 방법의 수업이 주를 이루었으며, 과밀학급과 자격을 갖춘 교사의 부족으로 인해 문서적인 체육과 교육과정과 실질적 교육과정 운영이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강신복, 2009).

3·4차 체육과 교육과정(1973-1987) 역시 강건한 국민 육성을 기본 토대로 하여 체식 훈련에 가까운 순환운동이 하나의 영역으로 제시되었고(교육부, 2000), 체육교사에 대한 비민주적인 이미지가 형성된 시기였다. 1~4차 교육과정은 전반적으로 운동 기능 숙달에 가장 큰 가치를 두었으며, 학교현장에서 형식적인 교육과정을 일률적으로 실천하기에도 급급한 열악한 시기였다. 학교 현장에서 문서적 수준의 교육과정을 맹목적으로 따르려 노력하였지만, 그 조차도 교육여건 미비로 인해 어려웠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3.2.2 5~6차 교육과정의 실행

교육과정을 수동적으로 가르쳐야 했던 시기에서 벗어나 단위 학교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5~6차 교육과정 시기는 과도기적 실천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5차 체육과 교육과정(1987-1992)은 4차 교육과정의 기본적 흐름을 유지했으나, 학년별로 발달단계 모형에 따라 계획된 교육과정의 내용과 달리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1학년과 3학년을 동일한 내용과 수준으로 수업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강신복,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5차 체육과 교육과정은 구체적 지도 내용에 대해 단위 학교에 의사 결정권을 부여하기 시작하여(교육부, 2000) 실천적 교육과정의 출발점이 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6차 체육과 교육과정(1992-1997)은 ‘학교 교육 과정’을 처음으로 편성하고,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교육과정 개발자로서의 교사(유정애, 2010)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6차 체육과 교육과정은 외국의 체육과 교육과정이 유입되고, 학회나 체육교사모임을 통한 연구가 싹트는 시발점이었다. 그러나 ‘학교 수준의 체육과 교육과정’을 작성하게 되면서 결과 중심의 평가 관행을 가져오게 되었으며(교육부, 1995), 수업의 질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교사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신복, 문호준, 1996; 권병선, 1999). 5~6차 교육과정은 전반적으로 7차 교육과정의 능동적, 자율적인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가는 과도기적 성격을 보이며 학교 현장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의 책무성을 가지기 시작하

였으나, 실질적으로 단위학교의 여건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3.2.3 7차 교육과정의 실행

체육교사가 교육과정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 활동을 선정하여 교육 과정을 능동적으로 편성·운영하는 7차 교육과정 시기는 자율적 실천 시기의 성격을 갖는다. 7차 체육과 교육과정(1997-2009)은 교육과정의 실천적 수준의 연구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이다. 박대원과 박종률(2012)의 연구에 따르면 1997년 이전 학술지에 발표된 체육과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는 11편인데 비하여 7차교육과정 개정을 기점으로 게재된 논문이 24편으로 이 시기에 체육과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학계 내의 학교 체육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7차 체육과 교육과정은 10개 학년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2개 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토대로 단위 학교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적극 부여하였다. 체육과 내용을 필수 활동과 선택 활동으로 나누어 제시하여 교사가 교육과정을 단위 학교의 상황에 맞게 능동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지만, 체육교육 환경은 개선되지 않은 채 체육교과 시수가 처음으로 줄어든 시기이기도 하다. 7차 체육과 교육과정은 교사가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초의 교육과정이었지만, 체육 수업의 내실을 높이기 위한 현장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시기였다.

3.2.4 2007 개정~2009 개정 교육과정의 실행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은 기존의 ‘운동 기능 중심’에서 ‘신체 활동 가치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큰 변화를 이루어 혁신적 실행의 가능성을 열어둔 시기이다. 또한 단위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및 유연성이 더욱 확대되어 교육과정이 생겨난 이래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선택을 가장 전폭적으로 존중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적 실행의 발판이 교육과정에서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가 실질적으로 교육에 반영된 정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이규일과 허창혁(2011)은 일부 학교에서 2007 개정 이후에도 7차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2007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가 학교현장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 대하여 학교 현장 교사들의 대부분이 스포츠중목 중심으로 이전의 교육과정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학교급별 학년별로 계열성이 부족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해훈, 2011; 이승율, 2012). 특히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은 ‘신체 활동 가치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이 생겨난 이래 전면적인 개정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활동을 통해 동시

에 바람직한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과정의 주된 개정 취지가 왜곡되어, 신체활동은 줄이고 가치 교육은 늘려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형식으로 받아들여기도 하였다(문해훈, 2011).

2013년부터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체육과 교육과정의 실행을 앞두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체육과 교육과정은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 비해 본질적인 내용상의 변화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창의·인성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편성·운영하는 점이 특징이다. 짧은 시기에 2007 개정,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체육과 교육과정이 도입되어 학교체육의 혼란이 예상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체육과 교육과정이 성격 및 구조의 본질적인 변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론 수준의 커다란 변화가 있어(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 학교 현장에 과연 어떤 방법으로 지도하고 평가해야 하는가의 고민을 안겨주었다. 학교폭력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체육수업시수가 갑작스럽게 증가되었고, 창의적 체험활동 내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운영도 시작되었으나, 증가된 시수의 교육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미비한 실정이다. 창의·인성에 대한 개념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고,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담당할 전문성을 갖춘 지도교사 또한 부족하다. 따라서 학습 가능한 신체 기능적인 창의·인성은 무엇인지 제시하여 신체 활동을 통해서 창의·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관련 요소들을 활동 내용에 구현할 수 있는지 예시를 제시해야 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 또한 지도 경험이 풍부한 스포츠강사의 확보에 행·재정적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4. 체육과 교육과정의 전망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개정된 체육과 교육과정을 문서 체계, 개발, 실천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체육과 교육과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는 책임감 있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수시 개정 체제를 취함으로 인해 2007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기도 전에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체육과 교육과정이 나오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수시 개정 체제는 수시로 바뀌는 대내외적 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잦은 개정으로 현장의 혼란을 증폭시킬 수 있다. 이에 현장의 교사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수시 개정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잦은 개정으로 인해 교육과정을 형식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교육과정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장의 교사들은 개정된 체육과 교육과정이 보급되더라도 어차피 1~2년 후에 또 다시 바뀔 거라는 생각에 교육과정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교육과정 개정을 형식적인 것으로 받아 들여 외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시 개정 체제 속에서도 체육교육의 본질이라는 지향점에 기반을 두고 장기적인 안목을 염두에 둔 책임감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 현장과 체육교사들에게 친화적인 교육과정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은 체육수업을 규정하고 체육수업의 기준이 되는 문서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학문적 문서화가 되는 것을 경계하고 교사와 현장에 친화적인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개정 시 새로운 학문적 체계를 담으려는 부담감이 현장교사와 동떨어진 교육과정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체육활동이 다각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의 교육과정은 학교 체육수업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체육수업은 물론이고, 방과 후 체육수업, 창의적 체험활동으로서의 체육, 토요일스포츠데이에서의 체육, 학교스포츠클럽에서의 체육 등 학교 내 모든 체육을 아우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소통이 있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총론과 각론의 소통, 개발자와 현장의 소통, 체육 영역 간의 소통, 실천 과정에서의 소통 등 교육과정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체육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시대적,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여 수시로 교육과정을 개정해왔지만 교육의 이해당사자들에게 교육과정의 철학과 취지를 전달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은 부족하였다.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문서적 차원의 교육과정 전달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철학과 의도 및 개정의 배경에 대해 현장 교사들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종래의 형식적인 강의식 전달 연수를 지양하고 현장 교사들과 소통하려는 방법적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

5. 요약

문서적 차원에서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을 통해 추구하는 철학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지침을 문서화하여 제시한 것으로, 각 급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실현하는데 근본이 된다. 체육과 교육과정의 문서는 그동안 여덟 번에 걸친 개정을 거치며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는 스포츠교육학계의 학문적 발전과 국가 사회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서적인 발전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의 실행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교육과정 개발자들에게 체육의 본질과 교육적 목적을 반영하고 현장에서 충분히 구현될 수 있는 현실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면, 현장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자신의 학교와 학급 수준에 맞게 재구성해서 최대한 잘 실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장교사들의 이러한 전문성을 함양을 위한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현직 교사교육이 필요하다.

교사가 만들어진 교육과정을 수동적으로 이행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교육이라는 성장 과정 속에서 교사 스스로 교육과정 개발자(유정애, 2010)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책무성을 가질 때 문서상의 교육과정과 실천적 교육과정 사이의 간극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연수나 현직교사 교육, 체육교사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의 해석, 실행, 개선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 등의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²⁾

2) 본 논문은 2013. 4. 30. 투고되었고, 2013. 5. 24.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2013. 7. 12. 게재가 확정되었음.

❖ 참고 문헌

- 강신복, 문호준 (1996). 현행 체육교육과정에 대한 현직 교사의 관심도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35(4), 348-358.
- 강신복 편 (2009). **현대 스포츠교육학의 이해**. 서울: 레인보우북스.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 (1995). **고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해설**.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 (2000). **고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해설**.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 (2007). **체육과 교육과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권병선 (1999). 체육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도 및 활용도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38(3), 297-311.
- 김기철 (2008). **체육과 교육과정 개발과 적용과정 탐색**.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충북.
- 김원정, 강신복 (2006). 체육과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의 참여 주체와 맥락의 이해. **한국체육학회지**, 45(3), 63-75.
- 문해훈 (2011). **2007 개정체육교육과정 운영실태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박대원, 박종률 (2012). 국가수준 체육과교육과정의 연구 성과 및 향후 과제.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9(2), 65-92.
- 우정호 (2003).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정방식 개선안'에 대한 의견. **교육과정 연구**, 21(3), 31-37.
- 유정애 (2010). 왜 교육과정 개발자로서의 체육교사인가?.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7(4), 1-18.
- 유정애, 서지영, 장용규, 김기철, 권민정 (2007). **초·중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해설 연구 개발**.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규일, 허창혁 (2011).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체육과 평가 실태 분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8(4), 39-58.
- 이승율 (2012). **2007년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 대한 중등학교 체육교사의 인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충북.
- 이흥우 (1996). 전인교육론. **도덕교육연구**, 8, 1-21.
- 조미혜 (2003). 체육과 교육과정 개정 방식의 개선방안 탐색. **교육과정 연구**, 21(3),

179-19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2011 체육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교과 교육과정의 적용과 질 관리 방안.

<Abstract>

Past Developments and Future Directions in Revision of Korean
Secondary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Lee, Oks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an overview of past developments in revision of National Curriculum of Physical Education (NCPE) and to explore the issues related to curriculum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In a curriculum text level, the structure of curriculum document, objectives, and contents of NCPE have been revised in response to the development of discipline of sport pedagogy and changing needs of society. Regarding the issues of curriculum revision, three critical issues have been emerged: (a) aligning general guidelines of national curriculum with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b) reconciling opinions of diverse agents in curriculum development, and (c) overcoming the breach between school context and NCPE. The implementation of NCPE has been improved from passive transmission of NCPE toward more active re-organization of NCPE, thus encouraging more innovative curriculum implementation in the school settings. Future NCPE should be developed to reflect the essential nature of physical education subject and should be developed as teacher-friendly curriculum that can bridge the school contexts and NCPE.

【Keywords】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revision process, curriculum development, curriculum implementation